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전북교육청, 제13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교육수요자 불편사항 해소 위해 이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제1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내·외부위원 10명이 참석,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 18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이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점과제로는 전북교육청 1부서 1과제 발굴을 통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 △학교 행정업무 AI로 더 쉽고 빠르게 △안전한 놀

봄학교 운영을 위한 안심 하교 지원 「늘봄지킴이」운영 △학교 맞춤형 대입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책임관인 이호영 감사관은 “AI·에듀테크 등 공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수요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12일 베트남 하이퐁기술전문대학교(이하 HTPC)와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주비전대학교 제공)

전주비전대, 동남아 유학생 유치 박차

베트남 하이퐁기술전문대와 협약... 복수학위제 운영 등 협력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2일 베트남 하이퐁기술전문대학교(이하 HTPC, 총장 LA DINH KE)와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HTPC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국제교류원장 등 양교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복수학위제 운영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 △교수진 상호 교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했으며, 향후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HTPC 총장 LA DINH KE는 “이번 협

약을 계기로 전주비전대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병훈 총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양교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현재 약 500여 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로컬창업 활성화 · IP 활용 통한 상생 발전 도모

전주대, 남부시장 상인회 · 더레드와 협약 체결... ‘모이장’ 내 1개 실 로컬창업 거점 활용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1일 전주남부시장 ‘모이장’에서 로컬창업 인재 육성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사)남부시장 상인회(회장 오귀성), (주)더레드(대표 정희수)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시열 교수(전주대 로컬벤처학부 학부장), 오귀성 회장(남부시장 상인회), 정희수 대표(더레드)를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기관은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협력사업 수행 △상호 관심분야의 인력, 지식정보 교류 및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로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을 위한 다양한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창업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1일 전주남부시장 ‘모이장’에서 로컬창업 인재 육성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사)남부시장 상인회, (주)더레드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을 이끄는 대표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식재산권 기반의 소상공인 혁신과 로컬창업 인식 확산, 그리고 실질적 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컬창업을 위한 인재 양성과

기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로컬창업과 지역가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대는 이번 협약으로 문화관광장 작당 ‘모이장’ 내의 1개 실을 로컬창업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13~14일 미래형 교육과정 IB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3~14일 이틀간 초·중등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PYP, MYP, DP)의 철학과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형 교육과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고, 교사들의 수업 설계 역량 및 교과별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3일에는 초·중등 교원이 함께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강의에 참여하며, 14일은 초·중등 프

로그램별로 특화된 연수가 진행된다.

PYP 과정에서는 학생 주도형 수업과 평가 방식, 중심 아이디어 개발 및 학년별 학습이 포함되며, MYP와 DP 과정에서는 교과별 단위 설계, 평가기준 이해 및 IB 프레임워크 적용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하고 학습에 참여해 IB교육의 철학을 몸소 체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올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사서 등 7개 직종

총 262명이 선발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올에는 사서 채용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독서인문 교육’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최종 선발된 교육공무직원은 7개 직종, 262명이다.

직종별로는 △사서 86명 △교무실무사 6명 △조리실무사 135명 △특수교육지도사 31명(장애 포함) △교육복지사 2명 △사회복지사(Wee센터) 1명 △과학문화해설사 1명 등이다.

최종합격자는 채용 후보자 등록 이후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BK21 우수 대학원생

국제연수 전원 선발 ‘패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년 4단계 BK21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공동연수 지원사업’에 대학원생 5명이 지원해 전원 선발되는 패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 가운데 3개월 이상 BK21 사업에 참여한 우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과 연구 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했다.

이에 전북대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하고, 교육부의 대학별 추천을 통해 3명을 추가 추천해 강은아(기록관리학과), 김현규(전자정보공학부), 송도훈(사회복지학과), 정원균(환경에너지융합학과), 한재호(농축산식품융합학과) 박사과정생 등 5명 모두가 최종 선정됐다.

선발된 대학원생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항공료 및 연수비 등 총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국제교류원, 미얀마 등

외국인 유학생회 임명장 수여

이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율적인 교류 활동을 장려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명된 유학생 대표들은 각국 유학생회의 회장으로서 자국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교류 행사 및 학교 공식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심영국 원장을 비롯해 국제교류원 직원들이 참석해 유학생 대표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미얀마 유학생회 회장으로 임명된 퍼암생문자(HPAU YAM SENG MUN JA) 학생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미얀마 유학생은 물론, 다른 국가 유학생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며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심화형 선정

전북대 부상돈 교수 연구팀, 3년간 총 15억 지원받아

강유전 나노튜브 기능화 응용 관련 연구 본격 수행



부상돈 교수



이흥석 교수

우 공주대 교수와 함께 ‘강유전성 나노튜브 구조에서의 특이 도메인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나노구조 도메인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이 기술은 플렉서블 나노섬유 제작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연구팀은 강유전 복합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확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부상돈 교수는 “전북대가 보유한 탄탄한 연구 인프라와 공주대 연구진의 협업을 통해 강유전체 기반 나노 전자소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수확 기술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소규모 창의·도전형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해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핵심 연구지원 사업이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부 교수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강유전 나노튜브의 기능화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이흥석·조덕용 전북대 교수, 최진

‘나의 레시피가 곧 학교식단’

전북교육청, 내달 12일 학생참여 요리·전시 경연대회 개최

20일까지 접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저탄소 레시피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실습실에서 ‘제1회 학생참여 요리·전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바람직한 식문화 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탄소 레시피 발굴 및 보급으로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과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급소토랑-나의 레시피를 학교급식으로!’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특산물 27가지를 포함한 급식식단과 레시피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대표 농특산물은 전주 미나리, 장수 토마토, 정음 귀리, 남원 파프리카, 익산 마·고구마, 진안 표고버섯, 부안 참뽕 등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3인 1팀)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출품식단 설명서, 요리별 레시피 등의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0일까지 이메일(guswsl261@j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1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며, 본선 대회는 60분간 2인분을 직접 조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해 각각 교육감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건강과장은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음식과 환경, 건강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저탄소 레시피 등을 고민하면서 탄소중립의 의미를 몸소 깨닫고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와 교류’

우석대, 21일 일본 교토서 ‘한일학술교류’ 개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가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1~22일 교토 수작쿠캠퍼스에서 ‘2025 한일학술교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와 교류’를 주제로 코리아연구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학술행사는 21일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는 김우자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과 일본 간 교육 문제와 근대적 시선’을 주

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제2부는 송기찬 리쓰메이칸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코리아연구센터 20주년의 의미와 성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22일에는 교토 평화박물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함께 탐방하며 평화와 역사에 대한 공동 학습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홍순권 동아대 학교 교수 일행과 정주하 백제예술대학교 교수 등도 참여, 한일 양국 학계 및 예술계의 폭넓은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공동모금회 우수 수행기관 선정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 2024년 공동모금회 우수배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북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품성장 지원사업’이 아동 진로특화지원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은 결과다. 이 사업은 아동의 흥미와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활동을 제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자아를 주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지원단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



아 군산, 완주, 전주, 진안 등 도내 5개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우쿨렐레, 밴드 등 다양한 진로활동을 운영했다. 특히 한 아동은 클레이밍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실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